

무용사에 우뚝 선 한 춤꾼의 삶

금세기 최고의 무용가 마사 그라함 전기 두권



현대무용에 크나큰 예술적 족적을 남기고 지난 4월 96세의 나이로 타계했던 마사 그라함의 생전의 공연모습.

이 세상에 크나큰 예술적 족적을 남기고 지난 4월 96세의 나이로 마사 그라함(Martha Graham)이 떠난 지 다섯 달이 지났다. 이즈음 그녀의 생전의 춤이 그러했듯 내밀한 삶과 그동안 가려 있었던 허상을 밝혀주는 자서전 「블러드 메모리」(“BLOOD MEMORY”, 279 pp. NEW York: Doubleday)가 출간되어 아직 기억에 생생한 그라함을 추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숨지기 한달 전에 그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구술한 것이 본서이다. 이 속에서 그녀는 춤에 얽힌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그녀가 겪었던 영광과 그만한 크기의 고난, 그리고 사랑을 진솔하게 토로하고 있다.

불세출의 춤꾼이자 안무가인 마

사 그라함은 본서 속에서 “나는 내 춤이 대단히 섹시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숙한 내면에 감추어 둔 성적 욕구를 무대의 전면에 공개했다는 점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에밀리 디킨슨이 적절히 지적했듯 우리 모두는 ‘석양 내려 쏘이는 저녁, 낮이 발개질 부끄러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라함은 “우습고 재미나고 신나는, 여하튼 삶의 모든 것을 춤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였다.

춤추고 춤을 만드는 것이 마사 그라함의 삶이었다. 그러나 1990년 10월 뉴욕에서 그녀의 191번째 새춤, 「단풍잎 쓰레기」를 발표하여 관중들을 열광시킨 것을 끝으로 등장하지 않았다. 언제든지 그녀는 관중들

로 하여금 자신의 춤에 감동을 느끼도록 해왔다. ‘뭔가 더 보여주었으면...’ 하는 감정은 그녀의 遺著, 「블러드 메모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감동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라함에 관한 전기적 저작이 때맞춰 함께 발간되었는데, 그것이 아그네스 드 밀(Agenes de Mill)의 「마사 그라함의 삶과 작품」(“MARTHA: THE Life and Work of Martha Graham.” 509 pp. New York: Random House)이다. 이 저작을 통해 우리는 앞의 책보다 훨씬 많은 그라함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글쓰기에도 대단한 재능을 가진 사람임을 이번 책을 통해 역력히 보여주는 아그네스는 이 전무후무한 무용가의 변덕스런 성격을 일목요연

하게 그려내고 있다.

역시 한 사람의 춤꾼이자 또한 안무가이기도 한 아그네스 드 밀은, 그러나 마사 그라함 밑에서 사사받지도 않았고 또한 함께 춤을 춘 사람도 아니다. 58년동안 동업의 지인으로 서 선배인 그라함을 추앙하는 입장이었다. 아그네스의 책을 보자면 마치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언니를 흠잡으려는 여동생의 질투심리, 또는 그러면서도 언니와 같아지려는 동생의 의욕을 보는 듯하다. 이러한 태도는 이상적인 傳記 記述자세로 보기 어려운 것이겠지만 그러나 ‘목격자’의 자세로서 차갑게 대상을 기술할 수 있는 장점을 갖기도 한다. 가령 다음과 같은 문장: “나는 1929년에 마사 그라함을 만났다.” 이간 객관적 사실을 서술한 것이다. 그런데 뒤이어 “마사는 그때 35살이었고, 그녀의 연인 루이스 호스트는 10년 연상이었다”고 하여 그라함조차 잊고 있을지 모르는 점을 꼬집어 드러낸다.

루이스 호스트는 사실 그라함이 「블러드 메모리」 속에서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지적하듯 무용에 대해 대단한 열정과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그라함은 잠시 언급하고 지나가는 데 불과하지만 아그네스의 책 속에는 보다 상세하다. 아그네스는 그가 한때 자신에게 “이제 때가 되었어. 이사도라 던컨이 길을 열었고 그리고 루스 세인트 데니스가 그 뒤를 따랐지. 그리고 이제는 마사 그라함의 시대야...너는 좀더 기다려야 할걸”이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루이스 호스트는 따뜻하고 유머가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덕스러운 그라함을 잘 다독겨주었다고 아그네스는 회고한다.

그라함의 책 속에는 그녀가 70여년 동안 미국의 무용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관계를 맺었던 동료 춤꾼, 매니저, 스폰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이들은 그 자체 미국의 현대 무용사의 중요 부분이 될 것이지만 다만 두어 사람에게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입을 다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동안 ‘그라함학교’에서 무용을 배우고 차후 ‘마사 그라함 센터’의 운영자로서 일했던 벤자민 가버와 그리고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사장으로서 그녀의 후원자였던 리라

애치슨 왈라스이다. 이들에 대한 소상한 설명은 아그네스의 글에 상재하다.

아그네스의 저서 속에서 미국의 무용사는 전례없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 특히 그녀는 1920년대와 30년대 브로드웨이와 그리니치 빌리지의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부각되었던 그라함의 모습을 소상하게 그려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두 권의 책을 통해 위대한 금세기의 춤꾼, 마사 그라함의 삶과 사랑, 그리고 영광과 그늘을 세밀하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현대 무용사의 전면과 뒷이야기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미국언론의 보도관행 비판한 「과장보도」

현재 버지니아 대학에서 정부론을 가르치고 있는 래리 사바토(Larry J. Sabato)교수가 미국 언론을 비판한 「과장 보도」(“FEEDING FRENZY: How Attack Journalism Has Transformed American Politics” 306 pp. New York: The Free Press)를 출간하였다. 이 책의 제목에서 쓰인 문구, 이를테면 ‘과장 보도’ ‘언론에 대한 공격’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바토 교수의 의도는 뉴스 매체들이 정치가들의 도덕적, 재정적 나아가 윤리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가히 정치가들의 모든 부분을 해부해내는 과잉보도를 비판하려는 데 있다. 여태 공인으로서의 책무를 갖대삼아 정치가에 대한 언론의 공격을 일종의 미덕으로 삼아왔던 저간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분명 사바토 교수의 이번 신서는 독특한 자리를 점한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이 마치 ‘사바토의 책이 언론에 대한 공격을 방자하여 개개 ‘언론인’을 헐뜯는다’고 주장하는 듯이 들릴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사바토의 「과장 보도」는 보도 관행에 대한 이성적이고 나아가 정중하기조차 한 책이다. 더욱이 아카데미한 저서이

면서도 학술서적들의 병폐인 딱딱한 학술용어를 구사하지 않음으로써 쉽게 읽히도록 손쉽게 씌어진 책이다.

이 책의 주제가 '언론에 대한 비판'이니 만큼, 글 잘쓰고 말 잘하는 언론인들로부터 있음직한 비난을 감안해서인지 사바토 교수는 서두에서 "국의자인 책상물림이 언론을 분석하고 비평을 하다보면 기필코 맞닥뜨리게 될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비판'의 위험성을 스스로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서 언론인들에 대한 예를 깎듯이 차리고 있다. 여하튼 그는 대학원생들의 도움을 받아 150명의 언론종사자들과, 수십명의 정부요인들 및 정당관계자들 등 총 208명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통해 본서의 뼈대를 만들어 냈다.

이 조사를 통해 특히 언론사의 기자들이 그들의 직업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해냈다. 뉴스 매체의 전문 종사자들은 항상 언론기업 및 광고주들에 대해 극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그들은 일반적으로 저자 사바토의 주장, 즉 언론이 그동안 유명한 정치가들, 이를테면 닉슨, 에그뉴, 에드워드 케네디, 포드, 게리 하트, 페라로, 덴 케일 그리고 부시 등에게 고의적인 斜視를 보냈다는 점에 대해 긍정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저자는 36번재의 문항을 통해 정치가 개인들뿐만 아니라 워터게이트나 이란 콘트라 사건에 대해서도 언론이 불평등한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유사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그러리라고 짐작하고 있던 점들을 확인시켜준 성과를 거두긴 했으나, 보다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가령 언론이 없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도했던가? 또는 과거에 비해 악의적 보도를 일삼는 언론인들이 현저히 많아졌는가? 그리고 저자는 악의적 과장보도가 특히 (정치가들 역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에 대한 것이 많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정치가들의 '사생활' 가운데 참된 의미에서의 '사생활'은 어느 정도인가, 또는 공공의 이익과 정치가의 개인 이익이 상치될 때 보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들이 그러하다.

사바토 교수의 견해와는 달리 많

은 사람들은 정치가, 또는 정부는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주적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 점은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 상식적으로 굳어져 왔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정치가의 책임을 언론이 항상 감시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그 감시역할을 언론이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주지하는 바이다. 최근의 이란 콘트라 사건만 해도 그렇다. 사실 이 사건의 경우 언론인들이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길이 애초에 정부로부터 봉쇄되어 있었고 기껏 정부가 스스로를 옹호하는 홍보적 성격의 발표문에 '조작' 당할 수밖에 없었다.

저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언론인들이 뉴스를 축소 왜곡시키고 있다는 자신의 견해에 대중들이 찬동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대중들 스스로가 이와 똑같은 정도로 대중문화의 상징조작에 심취하여 명사들의 위장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여하튼 저자는 언론의 병폐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풍을 아끼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정부의 언론통제에 대해서는 사려깊은 회피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그가 '훌륭한 언론인들'이 의식적으로 보도의 질을 고양시켜갈 때 과장보도, 그의 표현으로 하자면 '비문명적 정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피력하지만, 그러나 많은 미국인들은 '저속한' 언론인들 보다는 정치가들 스스로에게 '비문명적 정치'의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우리는 '무엇이 뉴스이며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라는 판단은 오직 뉴스매체 스스로가 내리게 되는 것이야말로 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쟁터 누빈 사진작가 카파의 새 작품집

아이들 가운데 그 누구도 웃지 않고 있다. 몇몇은 다쳤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비쩍 말랐다. 카메라를 향해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고 개중에는 행인들을 향해 빈 깡통을 들이미는 아이들도 있다. 그들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거리를 배회하면서 탱크의 포탑에 걸터앉아 놀거나 또는 피격된 전폭기의 잔해 속으로 들락거리는 것이 하루의 일과이다. 총소리 나지 않는 조용한 한낮에 놀이를 하면서도 아이들은 가끔 하늘을 유심히 살펴보기를 잊지 않는다. 마치 적기의 출현을 척후하는 듯이...

그럼에도 그들은 분명히 어린 아이들이다. 그들의 대부분은 기껏해



카파의 사진집 「전쟁의 아이들, 평화의 아이들」 중의 한 작품.

야 열살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들의 얼굴은 썩든 어른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평화시의 어린 아이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날카로운 눈매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시간 밖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혼돈스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댈 만한 미래를 갖지 못하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는 듯 싶다.

1954년 인도차이나 전쟁터에서 41세의 나이로 숨을 거둔 불후의 사진작가 로버트 카파(Robert Kappa)의 빼어난 7천여장의 필름 가운데 선별한 주제 사진집, 「전쟁의 아이들, 평화의 아이들」(「CHILDREN OF WAR, CHILDREN OF PEACE」, 167 pp. New York: A Bulfinch Press Book / Little, Brown & Company)이 출간되었다.

이 사진집을 통해 우리는 약 60년 전의 유럽과 아시아의 정경, 그리고 세계가 지난 2세대 동안 얼마나 숨가쁘게 변모해 왔던가를 느낄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흑백 영화필름들을 통해 한국전쟁의 모습을, 베트남 전쟁의 장면들을, 그리고 최근에는 칼라 텔레비전의 영상을 통해 순항 미사일의 궤도를 함께 추적하면서 변모한 전쟁의 모습을 감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놀랄 만한 사진집의 조용하면서도 열정적인 영상들을 천천히 감상하면서 넘기다 보면 우리

나, 다가오는 폭격기들을 두려움 없이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또는 조그만 가방을 든 채 전선에서 가까운 길을 무서운 줄도 모르고 터벅터벅 걷고 있다. 그들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는 전쟁이 곧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적어도 앞으로의 삶을 불구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다.

사실 카파가 포착해낸 전쟁의 이미지는 너무도 강렬하여 오히려 해맑은 느낌으로 와닿기조차 한다. 역으로 대부분의 경우 카파는 평화를 마치 또다른 전쟁인 것처럼 여기는 듯한 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평화로운 영국이 제3세계의 분쟁지역처럼 보이는 장면을 포착하는 것이 그 한 예이다. 즉 2차대전이 모두 끝난 영국의 한가로운 거리에서 전쟁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찍은 사진은 마치 그들이 탱크 소리나 총을 맨 병사들의 군화발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또는 금세기 자기 국경내에서는 전쟁을 겪지 않았던 미국의 어린이들이 장난감총을 겨누는 매서운 장면들도 카파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짐작케 하는 사진들이다. 「전쟁의 아이들」속에서 해맑은 모습을, 「평화의 아이들」속에서 그늘진 굴곡을 포착해내는 카파의 눈은 이 세계의 아이러니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카파는 인도차이나 전쟁의 와중에서 프랑스 군용트럭에서 전쟁 속의 어린이들을 사진에 담던 중 폭발로 목숨을 잃었다. 카파의 사진 속에 나타난 아이들은 아무런 공포도 보이지 않는 점이 의아스러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상황이 제아무리 전쟁보다 더 악화된 것일지라도 믿음직한 아버지나 어른들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거의 상처를 받지 않는 법이다. 기억해 둘 일이다. 카파의 덕택에 우리들은 이 세계에서 그나마 '순수함'을 볼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나, 다가오는 폭격기들을 두려움 없이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또는 조그만 가방을 든 채 전선에서 가까운 길을 무서운 줄도 모르고 터벅터벅 걷고 있다. 그들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는 전쟁이 곧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적어도 앞으로의 삶을 불구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다.

사실 카파가 포착해낸 전쟁의 이미지는 너무도 강렬하여 오히려 해맑은 느낌으로 와닿기조차 한다. 역으로 대부분의 경우 카파는 평화를 마치 또다른 전쟁인 것처럼 여기는 듯한 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평화로운 영국이 제3세계의 분쟁지역처럼 보이는 장면을 포착하는 것이 그 한 예이다. 즉 2차대전이 모두 끝난 영국의 한가로운 거리에서 전쟁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찍은 사진은 마치 그들이 탱크 소리나 총을 맨 병사들의 군화발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또는 금세기 자기 국경내에서는 전쟁을 겪지 않았던 미국의 어린이들이 장난감총을 겨누는 매서운 장면들도 카파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짐작케 하는 사진들이다. 「전쟁의 아이들」속에서 해맑은 모습을, 「평화의 아이들」속에서 그늘진 굴곡을 포착해내는 카파의 눈은 이 세계의 아이러니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카파는 인도차이나 전쟁의 와중에서 프랑스 군용트럭에서 전쟁 속의 어린이들을 사진에 담던 중 폭발로 목숨을 잃었다. 카파의 사진 속에 나타난 아이들은 아무런 공포도 보이지 않는 점이 의아스러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상황이 제아무리 전쟁보다 더 악화된 것일지라도 믿음직한 아버지나 어른들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거의 상처를 받지 않는 법이다. 기억해 둘 일이다. 카파의 덕택에 우리들은 이 세계에서 그나마 '순수함'을 볼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